

# 발해·당 전쟁

## 흑수말갈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

732년(발해 무왕 14)



대조영의 발해 건국지, 동모산 전경  
/ 동북아역사넷(동북아역사재단) /

### 1 개요

발해·당 전쟁은 732년 발해가 당의 등주(登州)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발해의 동북 방면에 위치하고 있던 흑수말갈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촉발되었다. 발해의 세력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흑수말갈이 당에 입조하자, 당 역시 흑수말갈을 통해 발해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당의 등주를 공격함으로써 양쪽에서 압박당할 수 있는 대외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였다. 당 역시 발해의 공격에 대응을 준비하였으나, 734년 발해와 협조관계에 있던 거란이 당에 격파되고, 돌궐 역시 혼란에 빠지면서 두 나라는 전쟁을 그만두고 화친하게 되었다.

### 2 발해와 당의 외교관계 수립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유민들은 당(唐)의 영주(營州)로 이주되었다. 당시 영주 지역은 당의 동북쪽 변경으로서 고구려 유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696년 거란 추장 이진충의 반란으로 인하여 영주 지역이 혼란에 빠지자, 당시 고구려 유민집단을 이끌던 대조영은 영주를 탈출하여 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동쪽으로 가 699년 발해를 건국하였다.

관련자료

발해 건국 집단의 지도자였던 대조영(大祚榮)은 주변 여러 나라에 건국 사실을 알리고 외교 관계 수립을 도모하였는데, 당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다. 705년 당은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와 국교를 맺고자 하였지만 거란과 돌궐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713년에 이르러서야 대조영을 좌효위대장군·홀한주도독·발해군왕(左驍衛大將軍·忽汗州都督·渤海郡王)으로 임명하면서 국교를 수립할 수 있었다. [관련자료](#)

당이 대조영에게 내린 책봉호는 발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발해군왕은 '발해 지역을 다스리는 군왕'이라는 의미로서, 지금의 발해만을 끼고 있던 발해의 영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당이 대조영에게 발해군왕을 제수한 것은 발해만 너머의 지역에 대한 통치권의 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홀한주도독은 발해가 건국한 지역에 대하여 기미주와 같은 형태로 편제한 뒤 내린 칭호로, 이시하스 지역 발해 지역에 대한 다의 이시하스 기미주에 대한 가제지배에 대한 차이가